

전북도,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참가

내일까지 고양시 일산서 개최, 전북 첨단 특화단지관 운영·소개 중심 첨단기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도내 이차전지 선도기업 첨단기술 등 홍보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도내 이차전지 선도기업 첨단기술 등 홍보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올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기술대전은 대한민국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 기업의 주요 성과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첨단공급망 생태계를 보여주는 기업 전시관부터 첨단·소재부품 특화단지 등 테마관도 운영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한다.

첨단 특화단지관은 전구체(양극재 원가 중 70%)·재활용 등 배터리 핵심공급 가능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 신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홍보하고, IG화학, 성일하이텍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전구체, 양극재 및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전북도 미래산업극장은 "이번 박람회 참석으로 국내 소부장 및

뿌리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와 더불어 특화단지관 운영을 통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로 꼽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결단식

총 26개 종목 500명 선수단 출전... 내달 3~8일 전남서 개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는 18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이병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도 장애인체육회 강경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종목 경기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졌다.

오는 11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남 일원에서 나합계, 곧세계, 끝까지 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전북선수단은 31개 개 최종목 중 26개 종목, 500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들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2022 한겨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사이클 이도연, 김용기,

허윤정, 김정빈, 육상 전민재 선수의 대회 3관왕과 탁구 이근우, 백영복, 태권도 이동호, 휠체어펜싱 류은환, 보치아 김연하, 론볼 김승희 선수의 입상, 꿈나무 선수로 다년간 육상해운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의 3년 연속 3관왕과 신기록 수립이 기대된다.

특히 사이클 박찬중, 이성순, 김경아, 최광수, 불림 이상준, 육상 모정태, 김혜경, 승마 서형석, 수영 원종인, 탁구 이현우, 최홍석 선수가 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신인 선수들로 대회 첫 출전 성과도 주목되고 있다.

구기종목에서는 남·여 좌식배구, 보석·청각축구, 지적능구, 휠체어 럭비, 개인종목으로는 사이클, 양궁 태권도, 육상필드, 론볼 보치아, 탁구, 휠체어펜싱, 파크골프의 활약도 기대된다. /뉴스시스

겨울철 재난 인명피해 예방·재산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전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 재난 발생시 협력체계 구축·피해 최소화 논의 등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도·관·부서, 전주기상지청, 전북경찰청, 육군제35보병사단,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내 7개 유관기관과 영상회의로 1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협업 기능 강화 및 소통을 통해 관련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설로 인한 고립 등 긴급상황 발생시 민·관·군 협업을 통한 도민의 생명

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유관기관은 겨울철 재난 대응 준비상황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강설 시 도로관리사업소, 시군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 주체별로 신속히 제설을 실시하고, 도로 경계구간 및 취약도로에 선제적인 제설재 살포 등으로 교통 불편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 발생시 군·경 인력, 유관기관 및 민간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인명피해 및 도로, 농축산 시설 등 사유재산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했다.

겨울철 대상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고갯길, 경사로 등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등급별 제설대책과 상습결빙구간 지정·관리 및 교통사고 저감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설제 사

절실포 시점 방법 등 제설 기준과 더불어 장비 순환주기 및 추가 장비·인력 투입 계획을 반영한 단계별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이면도로 등에 대한 후속 제설대책을 지속 실시하여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의 인명피해를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 원터도 전수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보온 조치 집중 홍보 등 피해 방지대책 마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파 취약계층(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보호대책, 야외 근로자 등 피해 예방 대책도 수립한다.

/김재훈 기자

'2022 회계년도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도 홈페이지·관공서 민원실 등에 비치...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전북도는 복잡하고 방대한 결산서를 도민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한 '2022회계년도 알기 쉬운 결산서, 한눈에 보는 전라북도 살림살이' 책자를 발간 및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그간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어려운 회계용어와 방대한 결산통계 자료를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약 2천 페이지 분량의 결산서를 2페이지로 알기 쉽게 담은 "도민용 결산서"를 제작한 것이다.

이 책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려운 회계용어는 친숙한 용어로 변경하고, 딱딱한 결산서의 숫자 나열보다는 도표 등 그래픽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고, 과도한 결산 정보는 연관성이 큰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2022회계년도 알기 쉬운 결산서는 10월 중순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도서관, 관공서 민원실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20일부턴 도 홈페이지(정보공개)·전북재정·세입·세출결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박현숙 도 회계과장은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이번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이 전라북도 살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전북학주간' 21일까지 개최

2019년 개소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 전북학연구센터(이하 센터)는 그간의 전북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2023년 전북학주간 프로그램을 18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전라강변 일원에서 운영한다.

2023년 전북학주간 사업은 전북의 지역 정체성을 연구하는 '전북학의 전문가들과 전북도민들을 아우르는 '봉

합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전북학의 기초를 다지는 전문가들의 학습의 장과 이를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북학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128년사(1896년 '전라북도' 설치)를 전북도민들이 톺아볼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과 전북이 가지

고 있는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북학 홍보 부스' 등이 상설 운영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 공연,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될 예정이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전라감사 식사시 놀이(아외)/취재시합 놀이(아외))와 공연 프로그램(조선왕

얼씨구나 종구나(아외)/마당놀이: 응을 쫓는 사냥꾼(아외)이 준비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5시에는 '특별한 최태성 강사를 초빙해 전라북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개특강이 선화당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8~20일에는 전북학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성과발표회 및 학술세미나, 다양한 전북학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 전북학 연구와 전북학도민 공감의 장을 마련한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신문 창간 15주년 기념 광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중동로 365 | 대표번호: 063-620-1114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하지 않는 병원. 친절하고 설명 잘 해주는 병원. 2019.12 - 2023.12.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1	지역응급의료센터 24시간 Call 체계 구축	063-620-1119
2	건강증진센터 One-Stop 시스템 구축	063-620-1160
3	장례식장 쾌적하고 정결한 시설	063-620-1140

박주영
원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